

기독교 장례문화

한호협/출판부

1. 교회사에 나타난 기독교 장례예식과 한국교회의 장례예식

죽음을 터부시하는 한국문화는 죽음에 관한 진지한 신학적 연구와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장례예식을 포함한 장례문화에 단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장례의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천하여 왔는지 고찰해 본 뒤, 한국교회가 얻을 수 있는 의의를 살펴본다.

1) 초대 기독교회

	장례식 시간	복 장	순 서	매장 방법	종교적 의미
초대 교회	낮	흰옷	- 죽은 자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기름을 바르고, 천으로 감아 둠 - 승리의 찬양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촛불을 들고 무덤으로 행진 - 무덤에 도착하면 기도와 성만찬 예전이 베풀어짐 - 시신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발을 동쪽으로 하여 안장한 후 - 애찬식(agape)을 갖고 - 며칠 동안 다양한 예배의식이 있었고, 매년 죽은 자를 기념하는 추모예배를 드림	매장	부활에 대한 소망과 승리의 행진
로마인	밤중	검은옷	-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자들과 피리연주자들이 동원 - 무덤가에서 식사를 나눔	화장	

* 예수님 당시 : 신약성서를 통해서 당시의 매장관습과 장례를 전후한 풍속을 볼 수 있다(눅7:11-15; 17:11-19, 마27: 58-61). 유대사회의 장례법은 구약의 풍습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 중 누가 사망하면 온 마음을 기울인 애곡이 있었고, 애도와 애곡을 위해 직업적인 울음꾼들을 고용할 수가 있었다. 뜨거운 기후조건으로 인해 24시간 이내로 장사지내야만 했다. 시체는 물로 씻은 다음 천(세마포)으로 썼다.부자들은 몰약과 침향을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묘지나 동굴에 장사지냈고 부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장사지내고 동굴들로 봉했다.

1)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R.드보 이양구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9. 6판. p.115.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의 화장 풍습이나 전문인들을 동원하여 애곡하는 것, 사후 세계에 대한 이교적이거나 유물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장례식은 당시의 관습을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특별히 순교자나 신앙의 영웅들을 위한 연례행사는 더욱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다.

5세기 경에는 야만족의 침입과 도시 밖의 무덤 훼손의 위험 때문에 순교자 혹은 성자들의 유해가 교회 안으로 이장되었고, 이러한 신앙인들과의 연결성을 원하는 일반 신자들도 교회뜰(churchyard)에 묻히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교회와 묘지 사이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초대 기독교의 장례예식은 몸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소망이 그 특징이며,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실제로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의 경우 세속적 생일보다는 천상의 생일, 즉 순교일 혹은 사망일을 더 의미 있게 경축했다.

2) 중세 기독교

초대교회와 매우 다른 변화가 있다. 초대교회와는 달리 두려움과 공포가 그 특징이다. 매장은 지옥과 연옥에서의 형벌과 심판으로 연결되며,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일종의 위협이었다. 대부분의 중세교회들은 성상 안치소 위에 벌 받는 자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함께 최후의 심판에 관한 벽화가 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참조 : 단테의 「신곡」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사후 세계관이 장례예식에 적용된 것).

이런 이유로 1179년에 열린 제3차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는 그리스도인의 장례를 하나의 성례전(sacrament)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장례가 부활과 희망의 분위기라면 중세의 장례식은 암울하고 두려운 공포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 저편의 세상에서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존재로 군림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과 장례식은 이에 이용되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제촉한 폐단 중의 하나였다.



3) 종교개혁시대

중세의 폐단들은 종교개혁의 공격의 대상이었다.

* **마틴 루터** : 중세 장례식이 지닌 슬프고 암울한 성격을 벗어나서 소망에 초점을 두어야함을 강조. 죄의 사유와 휴식, 영면, 앞서 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위로의 찬송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 장례예배를 지지. 장례식 전 철야기도나 죽은 자를 위한 미사, 행렬 성가, 연옥,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정죄하고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 매장 의식보다는 찬송과 시편, 그리고 매우 단순한 의식을 사용하도록 함.

* **개혁교회와 청교도들** : 시신을 무덤으로 운구한 뒤 아무런 의식도 행하지 않고 입관한다. 그런 다음 목회자가 교회로 돌아와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으로 장례를 마칩.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장례식에서 하는 설교마저도 종종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칭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칼빈** : 장례식에서 설교를 인정했으나 매장을 위한 예배의식은 마련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의 전통은 매장 이후의 성경봉독과 설교 중심의 예배를 묵인하여 왔으나 몇몇 자유교회는 매장을 순수한 세속사로 여기고 아무런 예배도 갖지 않았다.

* **영국교회(성공회)** : 개혁교회나 청교도들에 비하여 보수적이며 다소 복잡했다. 1552년 장례식의 성만찬이 사라지고 예배가 묘지에서 이루어지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도 자취를 감추었다. 단지 시신 위에 흙을 덮는 동안 일정한 선언과 기도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고전15:2-58절 봉독, 위탁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

* **존 웨슬리(감리교)** : 성공회의 1662년 「공동예배서」에 나타난 기본적인 장례의식의 틀을 유지하였으나 시편 39편, 기도문 하나, 그리고 위탁의 말씀 등을 제거하여 간소화했다. 대신 장례예식에서 소망에 강조점을 둔 열정적인 찬송을 사용한 것은 웨슬리 감리교회의 커다란 변화라 하겠다.

4) 근대 기독교회

근대 기독교회의 장례식은 소망(초대교회)도 공포(중세교회)도 모두 망각하였으며, 죽음을 기독교 메시지의 일부로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묘지는 그리스도인의 의식 밖으로 쫓겨났고, 장례관습은 지나치게 상업화, 형식화되었다. 교회는 장례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 꽃으로 장식한 관으로 대체했다. 메시지도 죽음과 사후의 삶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죽음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가톨릭 1962 제2차 바티칸 공

의회/ 미국장로교회 1986/ 연합감리교회).

5) 한국 개신교회의 장례예식

교단별로 표준 예식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

* **장로교회 표준 예식서(1984년판)에 나타난 장례예식 순서** : 묵도, 기원, 찬송, 기도, 설교, 기도, 약력소개, 찬송, 축도, 광고, 발인.

* **기독교 대한 감리회(1991년 판) '예문'의 '장년 장례식 예문'** : 예식사, 묵도, 찬송, 고독, 송영, 기도, 성경봉독, 조가, 축도 또는 주기도, 출관.

*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식서' (1983년 판) 순서** : 개식사, 기원, 기도, 성서봉독, 설교(생략할 수도 있음), 기도, 약력보고, 조사(또는 조가), 호상의 인사, 찬송, 신앙고백, 축도.

* **침례교회 '목회예식서' (1981년 판)** : 전주, 입장, 개식사, 묵도, 찬송, 기도, 성경봉독, 설교(권면), 조가, 고인의 약력, 조사, 찬송, 광고, 축도로 구성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세 단계, 초대교회가 보여준 소망의 태도, 중세교회의 형벌과 공포, 근대교회의 거부 및 회피적인 태도 등의 단계를 보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죽음과 장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세워야 할 때다.

6) 한국교회의 장례문화와 호스피스 장례

기독교 장례는 먼저 고인을 추모하고, 애통하는 유족들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특히 유족 또는 친지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죽음 앞에서 인생문제의 절박한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

신학자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기독교 장례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산 자에 대한 선교적 기능이고, 또 하나는 유족들에 대한 선교적 기능이다. 장례를 전후해서 많은 목회적 배려가 유족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죽어 가는 자, 호스피스 환자들에 대한 배려는 현대의학 기술과 수많은 생명연장 장치로 무장한 의사들과 병원에 넘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죽어 가는 자, 혹은 죽은 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한국교회의 장례문화

한국의 장례 문화는 유·불·선·도교·전통 무속 사상의 습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 장례 예식 역시 순서와 용어의 사용에 있

기독교 장례문화

어서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시신을 묻거나 화장하는 일체의 예절을 의미하며, 장례는 기본적으로 임종, 죽은 자의 시신처리, 시신을 장지로 옮기는 일, 매장 또는 화장하는 절차 등 임종예식, 입관예식, 장례예식, 하관예식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2) 호스피스 장례

호스피스 환자들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길 원하지만 최근에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 70%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 또한 대개의 경우 전문적인 염사가 있는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거나 장의사를 이용하게 되므로 과거와 같이 직접 수습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 있는 자를 문안하였고(창 48:13-20),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가족들에게 유언하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모습이 있다(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이다/장자에 대한 부탁을 하는 중에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는 소망을 준다/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임을 밝힌다. 창47:29-31, 48:13-20, 50:25-26; 왕상2:2-3).

2. 한국 개신교의 장례문화

삶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되고 느끼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삶의 철학은 삶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본질은 삶에 불안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만약 인간이 동물이거나 혹은 천사라면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천사의 종합적 존재이기에 불안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그는 실존의 태도를 셋으로 구분하였으니 첫째, 미적 실존은 향락을 삶의 본질과 목적으로 가지므로 우수와 불안의 연속적인 결단성을 갖게 되며 둘째, 윤리적 실존은 선을 추구하는 삶을 가지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여기에서 인간은 삶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된다. 셋째, 종교적 실존은 신과의 합일을 구하는 생활태도로서 삶에 대한 불안과 죄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이기에 삶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 극

복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존재의 용기를 얻게 되는데 있다.

1)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자세는 첫째, 본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요16:5).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기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길을 갖게 된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요11:25-26).”고 하신 것과 같이 장막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는 실존적 삶의 변화이다(고후5:8).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요14:1-2).” 하신 말씀과 같이 죄와 슬픔, 고통과 절망, 괴로움과 근심, 세속의 도시를 떠나서 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종교적 실존에서 영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또한 이 죽음은 순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실존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빌1:23).

이 괴로운 세상에서 기쁨의 세계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인생의 나그네 길 속에서 천국 나그네 길로 변화되는 실존을 의미한다(창47:1-9).

베드로는 벰전2:11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요5:24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된다(계 21:1-4).

우리에게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한 세계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약4:14). 그러나 죽음과 더불어 사는 세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의 기쁨을 갖게 된다.

2) 장례의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경에는 인간의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인간이 죽은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축복된 삶



이다. 구약 열왕기하 9:17에 보면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사실 그대로 이세벨의 고기를 먹어 “두 개골과 발과 손바닥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악한 왕 여로보암과 그의 후계자 바아사도 같은 저주를 받았다. “성에서 죽은 족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족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왕상14:11).”고 하였다. 신약성경에서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사법대로 장사했다.”고 했다(요19:40).

3) 장례의식의 절차

(1) 임종예배

아픈 죽을 기한이 임박해 오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맹세시키면서 그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하고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창47:29-37).

요셉 자신도 임종에 이르자 유언을 했다(창50:25-26). 다윗왕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왕상2:2-3).

임종 직전에 가족에게 유언을 주는 것은 첫째, 유족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해시키며 셋째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며 넷째로,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다(창46:4, 50:1, 행9:47).

식 사 : (우리는 지금 고인이 된 우리의 형제 고 ○○○ 성도의 임종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기도 :

찬 송 : (329장)

성경봉독 : (요14:1-6, 27-28, 살전4:13-18)

설 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희망에 대한 찬송가로 279장 등)

기도

축 도

(2) 입관예배

개식사: (이제 우리는 고 ○○○ 성도님의 입관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고이 쉬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봉독 : (요한복음 14장 1-6절)

설교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찬송 : (524장)

기도 :

입관 :

신앙고백 :

주기도문 혹은 축도 :

위로되는 말씀:(이사야 26:4절, 사무엘 22:2-3절, 사무엘하 22:32-33절, 시편 72편 10-17절, 신명기 33:27절, 로마서 8:28-39절)

(3) 장례예배 또는 출관예배

말 씀 : (엡 4-6, 히 12:1-3, 계 14:13)

설교제목 : 주안에서 죽는 자의 복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90-295장)

기도 :

고인소개 : (고인의 육성이나 유언 청취)

성경말씀 :

설 교 : 주안에서 죽은 자의 복

첫째, 주안에서 태어난 자가 복 있는 자다(엡 4:4-6).

둘째, 주안에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히 12:1-3).

셋째, 주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다(계 14:13).

찬 송 : (고인이 좋아했던 찬송)

마침기도 : (주기도)

축 도 :

(4) 하관예배

본 문 : (요 5:25-26)

제 목 : 영원한 삶

개식사 : (이제부터 우리의 형제 고 ○○○ 성도의 하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 송 : (539장)

기도 :

성경봉독 : (요 5:25-26)

말 씀 :

신앙고백 : (우리는 이제 사도 전승의 신앙을 사도신조로서 고백하며 우리의 형제 고 ○○○ 성도를 대지의 품에 안장하십시오.)

취 토 : (취토는 관에 흙을 뿌리는 것으로 열여 놓았던 횡대를 다시 덮고 취토해야 합니다.)

기도 :

찬 송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나 소망과 평화를 노래한 찬송가를 부른다.)

축도 혹은 주기도 :